

아만심 버리려 ‘긋은 일’ 한 고암 스님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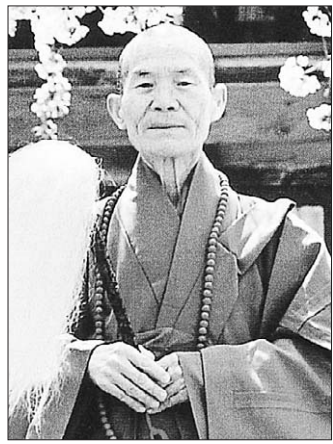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진월 스님 발표

고암 스님(1899~1988)은 조계종 3·4대와 6대 종정을 역임했던 선지식이다.

고암 스님이 금강산에서 만공 스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때다. 어느 사찰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암 스님은 공양주 소임을 자청했고, 물을 따뜻하게 데워 대종스님에게 올렸다. 그 모습을 맡았을 때 그리워 만공 스님이 하루는 고암 스님을 불렀다. “자네는 어찌자고 대중을 세숫물까지 덥혀서 떠다 바치시는가. 수년전 정혜사에 있을 때도 그러더니 여기 금강산에 와서도 그리하여 내 보기가 민망하이.”

고암 스님이 답했다. “절밥 먹은 지 몇 해가 됐다고 해서 마음속에 아만심이 돌아오고 그 아만심으로 해서 교만해진다면 이는 출가수행자로서의 도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아만심을 경계하고 스스로 하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긋은 일을 자청했던 고암 스님은 자비보살이었다.



조계종 3·4·6대종정을 역임했던 고암 스님

3차례 걸쳐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는 등 1960~70년대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를 이끈 선지식이었으나, 남다른 하심행으로 자비보살로만 알려졌던 고암 스님에 대해 학술적 조명이 시도돼 눈길을 끈다.

진월 스님(동국대)은 5월 23일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선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암 대중사 생애와 사상의 특징 일고’를 발표했다.

스님은 “고암 대중사는 교학과 계율에도 밝고 세계적인 포교와 불사 및 보살행을 아울러 실천한 당대의 선지식이요, 자리아태(自利利他)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던 자비보살”이라고 말했다.

고암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국토 즉 세상도 맑고 깨끗해진다’는 심정국토정(心淨國土淨)을 강조했다.

진월 스님은 “고암 스님은 참선을 중시했으나 계·정·혜 삼학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며 “참선법의 안목으로 열불 등 수행분야를 불이(不二)로 회통한 것은 근대에 드문 지도자적 특징일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율사였던 고암 스님은 수계에 있어서도 형식보다 마음가짐을 중시했다.

진월 스님은 “고암 스님은 계사의 자비한 눈과 수계자의 간절한 눈이 무념으로 마주할 때 계가 형성되는 목적전수(目擊傳授)를 강조했다”며 “선가의 이심전심과 같은 원리를 스님은 몸소 삶으로 실천해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고암 스님의 가르침을 ‘선(禪)·교(敎)·율(律)을 등지겸수(等持兼修)하며 중도실상(中道實相)을 지향하고 원융무애한 수행관을 보여준 조화로운 청백가풍’이라 정리했다.

한편, ‘선과 근대한국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비구니 분공 선사와 선종진좌’ (하춘생), ‘근대 선학원의 개혁 인식 연구’ (김경집), ‘박종빈의 불교개혁과 선사상’ (김방룡), ‘백학명의 선승일치와 근대불교 개혁’ (김순석), ‘임제의 선사상과 수행’ (윤월 스님), ‘열반경’의 선관 소고’ (정운 스님) 등이 발표됐다.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정중선파는 선종 초기종파”

변인석 교수 ‘정중 무상대사’ 발간

여동생이 칼로 얼굴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스스로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되는 모습에 부끄러워 출가를 결심했다는 무상 대사는 신라 왕자 출신이다. 중국에 건너가 정중종을 열고 오백나한에 포함됐던 무상 대사는 지금까지 선종사에 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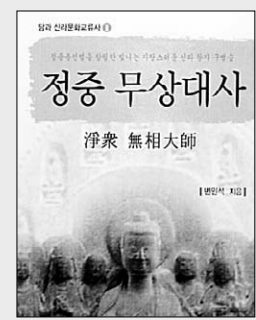
신라 구법승의 발자취를 따라 20여년 79차례 중국을 누볐던 변인석 교수가 최근 6년 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정중 무상대사> (한국학술정보)를 발간했다.

변 교수는 무상 대사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연대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라 신문왕

의 가계도를 통해 무상 대사의 입당 연대와 활동 배경 등을 역사적으로 밝혀냈다. 특히 변인석 교수는 야마구치 쥘이호와 염운화 교수 등 기존 연구자의 연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역사를 통해 당시의 불교를 설명했다.

변 교수는 “무상 대사가 세운 정중선파의 선법은 중국의 서남국인 둔황, 티베트와 남조까지 전파돼 큰 영향을 미쳤다면 정중종이 실질적으로 중국선종을 대표하는 초기종파”라고 주장했다. (031)908-3181

조동섭 기자



변인석 교수가 6년의 연구를 집대성해 펴낸 <정중 무상대사>

‘선종과 사대부...’

명법 스님 재조명

선종이 송대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서울대에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 중인 명법 스님이 <선종과 송대사대부의 예술정신> (도서출판 씨아일랜드)를 펴냈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이차장법상)의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의 세 번째 성과물인 책은 송대 선종과 예술의 비교를 통해 종교와 예술의 관계를 재조명했다.

법상 스님은 “<불교연구총서>로는 처음으로 스님이 저자라는 점에서 이전의 역서들과는 구별된다”며 “불교학계의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불교연구총서>의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명법스님이 펴낸 <선종과 송대사대부의 예술정신>

일본불교사연구소 개원

5월 23일 개원 기념 세미나 열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에 유학해 불교학을 배우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일본 불교학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불보지인 일본 불교의 밑거름이 될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가 개원해 눈길을 끈다.

일본불교사연구소는 5월 23일 동국대 제3세미나실에서 개원식 및 개원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원기념 학술세미나는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선(禪) 전통이 잘 어울려졌다고 평가받는, 한국 출신 일본 불교학자 다치하라 마사아키의 <겨울의 유산>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박광현 동국대 교수가 ‘다치하라의 혼혈의식과 전후 일본 사회’를, 김종희 동국대 외래교수가 ‘일본문학 속의 다치하라 마사아키’를, 김호성 원장이 ‘겨울의 유산’

에 나타난 한·일불교’를 발표했다.

김호성 교수는 “중세나 고대 일본 불교에는 한국불교 못지않은 고승들과 찬란한 전통이 있는데 한국은 근대 일본불교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해와 편협 일색의 낮은 인식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교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한·일 양국 교유한 유래”, 최동순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상월조사 행장발굴과 연보의 정정’이 발표된다.

△교학분과에는 정영식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천복승과, 각법해홍 그리고 보조지눌의 삼현문 해석’을, 하유진 외래강사(서강대)가 ‘초기 중국불교에서의 법신 사상의 전개’를, 김선근 교수(동국대)가 ‘<법화경>에 나타난 공사상’을 주제발표한다.

△응용분과에는 주광순 외래강사

사회·교학·재가불교·논리학 등 ‘논의’

30일, 한국불교학회·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등

5월 30일 불교학술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한국불교학회는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49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사학분과, 교학분과, 응용분과로 나뉘어 열린다.

△사학분과에는 김원명 교수(한국외국어대)의 ‘원효 사유 틀의 고요한 유래’, 최동순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상월조사 행장발굴과 연보의 정정’이 발표된다.

△교학분과에는 정영식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천복승과, 각법해홍 그리고 보조지눌의 삼현문 해석’을, 하유진 외래강사(서강대)가 ‘초기 중국불교에서의 법신 사상의 전개’를, 김선근 교수(동국대)가 ‘<법화경>에 나타난 공사상’을 주제발표한다.

△응용분과에는 주광순 외래강사

(부산대)가 ‘유럽중심주의 비판을 위하여’를, 조기룡 조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연구’를, 박동춘 소장(동아시아문화연구원)이 ‘금령 박영보의 <남다병서> 연구’에 대해 살핀다.

이번 행사에는 최동순 연구교수의 상월조사의 행장에 관한 연구와 조기룡 조교수의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특히 최 연구교수는 1911년(신해) 출생으로 알려진 상월 조사 탄신일을 연구할 통해 1922년(임술)생으로 바로 잡아 천대종학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강동근)는 오후 1시 부산대에서 ‘한국재가불교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문윤식 교수(원광대)가 ‘인도재가불교운동의 기원과 역사

적 전개’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가 ‘한국재가불교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김재영 박사(동방대) 교수가 ‘한국재가불교운동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붓다팔라 스님(다보선원)이 ‘위빠사나와 한국재가불교운동’을, 진명순 교수(영산대)가 ‘거사불교운동의 내용과 의미’를 밝힌다.

아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은 동국대 법학관 253호에서 국내외 미개척분야인 불교논리학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의 인식과 언어’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라식 호스트 교수(오스트리아 비엔나대), 파리말 패럴 교수(미국 하버드대), 앤드류 맥가리티 교수(호주 시드니대) 등 인문학 전문가가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9~30일에는 서울대에서 2009년 전국역사학대회가 열린다.

‘매체와 소통으로 보는 역사’를 주제로 행사는 공동발표와 동양사부고고학부 미술사부 등 12개 패널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석보상절’ 주해연구서 간행

김영배 교수 ‘석보상절 제23·24 연구’ 펴내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최초의 산문체 문학작품으로, 15세기 구어(口語)로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정황이 서술된 <석보상절> 제23·24권(보물 제 523·2호,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의 주해연구서가 간행됐다.

김영배 명예교수(동국대)는 최근 <석보상절 제23·24 연구>(동국대출판부)를 펴냈다.

중세국어 연구자인 김 명예교수는 1972년 <석보상절> 제23·24권 주해서를 발간했다가, 그간의 축적된 국어학 연구 성과를 담아 새로 주해연구서를 발간했다.

<석보상절>의 마지막 권인 제23·24권은 1966년 청주 용화사 영주 스님이 소장하던 것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소개됐다. 15세기 국어 자료가 대부분 불경을 언해해 한문 번역투로 기록됐지만, <석보상절>은 실제 국어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학계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여긴다. 책은 <석보상절> 제23·24권에 수록된 회개어를 비롯해 다양

한 언어 현상에 대한 국어학적 해설을 담았다. 또 대목마다 저경(底經)의 내용과 대비해 번역의 방법 등을 살필 수 있게 했다.

첫 책에 비해서는 주석 내용을 크게 고치고 해제와 연구논문 수록, 동국대 소장본의 원색 영인본을 추가시켰다.

조동섭 기자



김영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석보상절 제23·24 연구>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과 최강의 양택 발복법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참나(여래장)의 즉각적인 발현법 완성!

수 천 년 동안 어렵듯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20년간의 시행착오와 숱한 임상을 통해 마침내 누구나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전신에 경락이 일거에 타통된다.

각종 암을 비롯한 당뇨, 고·저혈압, 아토피, 목·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자기면역질환 등등 거의 모든 난치성질환들이 단시일에 근치된다. 담석마저도 녹아서 소멸된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마음과 영혼의 장애가 치유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등의 심적 장애가 말끔히 해소된다. 특히 병의, 귀절, 지박령 등등의 현상은 번잡한 절차 없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참나(여래장)가 발현되면 최강의 양택발복능력이 된다.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게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체험으로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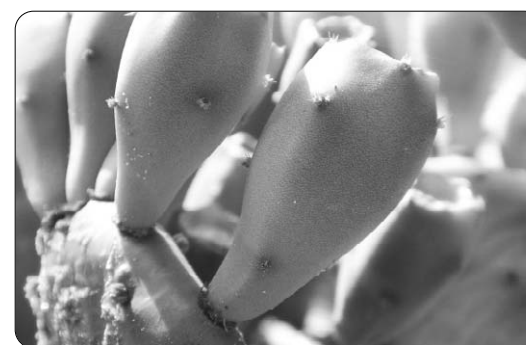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본성을 관하는 비법!

부조화로 고통받는 존재의 구성요소들을 규명하고 조정하여 조화로운 상태로 환원하는 비법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1:1 방식으로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 체험신청하세쇼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